

[취재] 넷이벤츠 인터뷰 : 액세디안 크레그 이즐리 VP

2011.04.11. 20:39

지난 2011년 4월 6일과 4월 7일 양일 간, 말레이시아 랑카위 안다만 호텔(The Andaman Hotel, Langkawi, Malaysia)에서 '2011 넷이벤츠 아시아태평양 기자간담회(2011 NetEvents APAC Press Summit, 이하 넷이벤츠)'가 개최되었다.

넷이벤츠는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 기업의 C 레벨 임원들과 관련 시장조사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업계 동향 및 각 기업의 전략 등을 소개하는 정기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IT 보안, 무선 기술, 영상 회의,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 통신망, 통신 인프라 등 업계 이슈에 관한 기업 및 시장 조사기관의 발표와 패널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넷이벤츠는 키노트 등으로 구성된 정규 프로그램 외에, 연사들과의 인터뷰 순서가 양 일간에 걸쳐 마련되었다. 아크로펜은 대한민국 공동취재단의 일원으로, 액세디안 네트워크 크레그 이즐리(Graig Easley) 마케팅 VP와의 인터뷰 세션에 참여했다.



액세디안 네트워크(Accedian Networks)는 이더넷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공급하는 기업이다. 지난 2004년도에 창립되어 7년여 동안 180여개에서 8만개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왔다. 적극적으로 인터넷 표준기관 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으며, 크레그 이즐리 마케팅 VP 스스로가 MEF 이사이기도 하다.

엑세디안에서는 올해가 커머셜 오퍼레이션 영업을 아시아에서 확장하는 원년으로, 자사의 솔루션을 한국 내에 공급하기 위해 파트너를 찾는 중이다. 이들이 선보이는 서비스 어슈어런스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로, 1)권슈머/커머스 네트워크 분리와 2) 서비스 디마케이션(Demarcation) 역할이 있다.

크레그 이즐리 VP는 "회사는 많은 포럼에 참가하고 있다. MEF도 참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난 찬 회장과 함께 9년간 이사회 활동 중이다. MEF와 관련해 엔지니어를 인증하고 테스트하는 일을 하고 있다. 특정한 테스트를 개발해서 엔지니어들이 MEF 스펙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일이다. 캐리어 이더넷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엑세디안 네트워크는 검증받은 교육기관이다. 회사가 MEF에서 선정한, 몇 안되는 교육실시를 한 곳이다. 지금은 영어로 진행되지만, 비디오 콘텐츠를 개발해 앞으로는 자막판을 배포할 계획이다"라고 포럼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Q1. (아크로웬) 한국은 데이터 수요로 데이터 전용 팜토셀을 트래픽 많은 지역에 집약적으로 배치했다. 이처럼 데이터 트래픽이 극도로 많아진 경우에 엑세디안 제품이 프로바이더 비즈니스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일단은 사업자들이 모바일 백홀을 위해 이더넷 쓰기 원하는 이유가 데이터 트래픽을 오프로드(주: 옮길 수)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선사업자 사례는 그 쪽에서도 첫번째 가장 중요한 목표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있어 모바일 백홀을 쓰면서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이다. 엑세디안의 어슈어런스를 쓰면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든 기본적인 서비스를 구매해 쓰더라도 고성능 내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Q2. (아크로웬) 'Plug & Go' 평선을 쓰면 현장 유지보수 인력을 기존 대비로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가? 기존 인력 재교육 기간이나 난이도는 어느 정도로 보는가?

METROMID 제품은 원래 플러그인해서 프로비저닝을 해야 되는데 이를 자동화시켰다. 덜 숙련된 사람을 써도 서비스 구축이 용이하다. 따로 인력을 보낼 필요가 없어졌다. 'Plug & Go' 기능을 써 하루에 100개 셀타워까지 증설한 사례가 있다. 이걸 안 쓰면 10개 정도밖에 못했을 것이다. 기존 인력 재교육은 이미 인력은 네트워크 컨셉은 친숙한 사람들이어서, 이더넷 쓰는 부분을 더 교육하는 정도다. 여기에서 난이도는 어렵지 않다.

<http://www.acrofan.com/ko-kr/live/content/?mode=view&cate=0303&wd=20110411&ucode=0803030206&page=1&keyfield=&keyword=>